석사학위논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전공

김 서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오정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mployment Support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Seoul -

2025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전공

김 서 희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오정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mployment Support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Seoul -

위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김 서 희

김서희의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혜 련 (인)

심 사 위 원 백 성 준 (인)

심 사 위 원 오 정 은 (인)

국 문 초 록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김 서 희

최근 유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국내 우수 인적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공 맞춤형 취업지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고등교육 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내 취업계획, 취업경험, 취업지원 수요 및 취업역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19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의 사후검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 직후 한국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모의면접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에 따라 취업지원 수요 및 취업역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취업지원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스스로 평가한 취업역량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위과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두 집단 간 취업역량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대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을 논증하였고,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향후에는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과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질적 연구와 더 다양한 표본을 고려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취업, 유학생 정주, 취업지원, 취업역량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범위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유학생의 개념 및 현황 ····· 4
1. 유학생의 정의 ····· 4
2. 유학생의 체류자격 ····· 5
3. 한국 내 유학생 현황 ····· 8
제 2 절 취업지원과 취업역량의 개념 ····· 1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14

제 3 장 연구 설계 ····· 19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 19
제 2 절 연구모형 ····· 20
제 3 절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 21

제 4 장 연구 결과 ····· 25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5
제 2 절 유학생의 취업계획 및 경험 ····· 27
제 3 절 가설검증 ····· 37

제 5 장 결 론 ····· 47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계 ····· 47

제 2 절 제언 ····· 50

참 고 문 헌 ····· 52

부 록 ····· 55

[부록 1] 국문 설문지 ····· 55
[부록 2] 영문 설문지 ····· 63

ABSTRACT ····· 71

표 목 차

[표 2-1]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 ····· 4
[표 2-2] 한국 내에서 유학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6
[표 2-3] 전공 및 학위과정별 유학생 현황 ····· 10
[표 2-4] 출신지역별 유학생 현황 ····· 11
[표 2-5] 국적별 유학생 현황 ····· 11
[표 2-6] 국외 선행연구 검토 ····· 14
[표 2-7] 국내 선행연구 검토 ····· 16
[표 3-1] 설문지의 구성 ····· 22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6
[표 4-2] 유학생의 한국취업 희망여부 ····· 28
[표 4-3]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 29
[표 4-4]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유형 ····· 30
[표 4-5]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30
[표 4-6]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32
[표 4-7] 학교 내 취업지원을 체감하는 정도 ····· 33
[표 4-8]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 35
[표 4-9] 전공에 따른 일자리 부족 응답 정도 ····· 35
[표 4-10]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른 취업지원 항목별 수요 ····· 38
[표 4-11]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른 취업역량 평가 ····· 40
[표 4-12] 가설1의 검증 ····· 41
[표 4-13] 가설2의 검증 ····· 42
[표 4-14] 가설3의 검증 ····· 43
[표 4-15] 가설3의 추가 검증 ····· 43
[표 4-16] 가설4의 검증 ····· 44
[표 4-17] 가설4의 추가 검증 ····· 45
[표 4-18] 가설검증의 결과 ····· 46

그 림 목 차

[그림 2-1] 최근 10년간 유학생 현황 ····· 9
[그림 3-1] 연구모형 ····· 20
[그림 4-1]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31
[그림 4-2] 구직경험 여부 ····· 34
[그림 4-3] 유학생의 취업정보 취득경로 ····· 3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의 규모는 253,434명이며, 어학연수를 제외한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은 179,190명에 달한다. 한국 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경쟁이 고조되면서 유학생 유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내에서는 2004년 정부의 'Study Korea Project'를 기점으로 국가 차원의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양적 확대만을 강조한 결과 유학비자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등장하는 등 유학생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0년대 초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앞선 유학생 정책의 과도기를 거쳐 오늘날에는 유학생의 유치를 넘어서 유학생을 졸업 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주시키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오정은, 2025).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더불어 유학생의 한국 내 체류에 대한 의지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3)에 따르면 졸업 후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63.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현재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업료 감면(51.1%)에 뒤이어 아르바이트/취업지원(40.0%)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체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현황이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은 곧 안정적인 정주로 이어진다. 유학생을 사회 구성

원으로서 정주시키려는 정책적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유학생의 한국 내 체류와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을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계획과 경험, 취업지원 수요, 취업역량에 대해 파악하여 제시하고, 더 나아가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을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질적인 유학생 취업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로 구성된다. 먼저 시간적 범위는 2025년 하반기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 내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는 서울이며 대상적 범위는 서울소재의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입되는 많은 외국인들의 목적지로서 외국인 인구의 수가 많고 출신 국가 또한 다양하다. 때문에 서울 지역의 유학생 역시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국 내의 외국인 유학생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다.

연구 대상은 서울소재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중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유학생은 유학기간 동안 체류국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이해하였고, 언어와 문화도 학습하였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새로 입국한 외국인에 비해 현지의 노동시장과 생활조건을 수용하고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오정은, 고지영, 김경미, 안상욱, 장지은, 한유경,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범주에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학위과정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은 어학연수생이나 교환학생보다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성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과정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유학생의 개념 및 현황

1. 유학생의 정의

OECD에서는 유학생을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과 ‘외국인학생(foreign student)’ 로 정의한다. 국제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출신국을 떠난 학생을 의미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등록된 학교와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때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의 범주에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OECD, 2016: p.168).

국내의 경우 유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의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1항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때 국내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OECD에서 정의한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과 ‘외국인학생(foreign student)’을 모두 포함한다.

[표 2-1]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

국제적 정의	국내적 정의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학생(foreign student)	

2. 유학생의 체류자격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릴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A~H까지의 큰 틀에서 각 유형별로 목적에 맞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다. 「출입국관리법」17조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만일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기존의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는 일반적으로 D-2(유학)와 D-4(어학연수)가 있다. 이때 어학연수의 경우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모두 가능한 활동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유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유학)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유학 활동이 허가되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D-2(유학) 이외에 유학 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기간, 가능한 활동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체류자격의 변경 절차 없이 해당 체류자격에서 유학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D-2(유학) 체류자격과 더불어 별도의 허가나 변경 절차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정리한다면 [표 2-2]와 같다.

[표 2-2] 한국 내에서 유학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구분	대상	약호	비고
유학 (D-2)	전문학사과정	D-2-1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학사과정	D-2-2	
	석사과정	D-2-3	
	박사과정	D-2-4	
	연구과정	D-2-5	
	교환학생	D-2-6	
	일-학습 연계유학	D-2-7	
	방문학생	D-2-8	
유학이 가능한 체류 자격	전문취업	E-1~E-7	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
	거주	F-1~F-6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기타	외교, 공무, 협정(A-1~3), 일반연수(D-4-2), 취재, 투자 등(D-5~D-9), 비전문, 선원취업 (E-9, 10),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 장기체류 아동(G-1-5, 6, 8, 13, 14), 방문취업(H-2)	비전문 취업 및 선원취업(E-9, 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원래의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능

자료: 하이 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https://www.hikorea.go.kr/Main.pt / 검색일: 2025.11.12.)

D-2(유학) 체류자격은 본연의 목적이 유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체류자격 내에서는 시간제 취업이 아닌 공식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D-2(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후 D-10(구직)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구직 가능한 기간은 일부 경우[1]를 제외하고 최대 2년이며 6개월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만일 D-2(유학)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과정이 종료된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한다면, 체류자격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1) 일반 구직(D-10-1)에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등,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 35점 이상,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등, 첨단기술인턴(D-10-3), 최우수인재(D-10-T)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이며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함.

3. 한국 내 유학생 현황

한국 내 유학생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유학생과 관련된 국내 통계는 주로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조사시점과 대상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체류 관리의 관점에서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유학생 통계를 집계한다. 때문에 유학(D-2) 체류자격과 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한해 유학생 통계를 집계하며 이 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의 경우 월별, 연별 통계를 제공하며 연도별 통계의 경우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와 달리 교육부의 경우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 중 외국인 신분의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통계를 집계한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다(현채민, 최서리, 이창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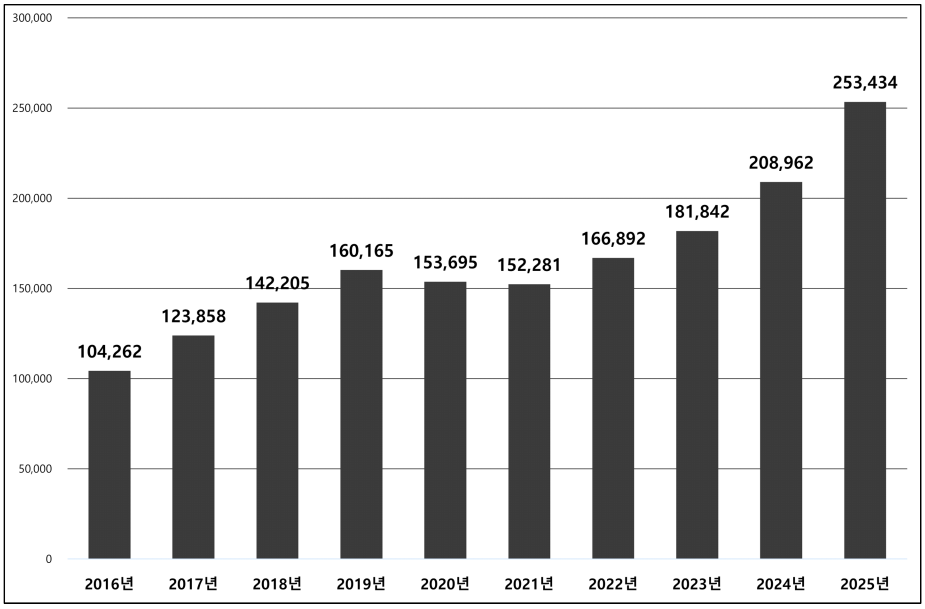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 내 정규 학위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유학생의 범주에는 유학(D-2) 체류자격 뿐만 아니라 외국인 신분의 학위과정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인 신분의 학생을 모두 포괄하는 교육부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의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최근 10년간 유학생 수 변화

[그림 2-1]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 한국 내 유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최근 10년간 한국 내 유학생 수는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인 2025년의 유학생 수는 253,434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의 유학생 수 104,262명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유학생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창원, 김도혜, 김화연, 최서리, 김도원, 2024).

[그림 2-1] 최근 10년간 유학생 현황

(단위: 명)



자료: 교육부(2025), 2025년 국내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주: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나.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른 유학생 현황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 학위과정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에 등록된 유학생은 179,190명으로 집계되었다. 학위과정에 따른 유학생 수는 전문학사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120,150명(67.05%), 석사과정 41,278명(23.04%), 박사과정 17,762명(9.91%)으로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이 114,418명(6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 30,889명(17.24%), 예체능 21,447명(11.97%), 자연과학 11,863명(6.62%), 의학 573명(0.32%)으로 나타났다.

[표 2-3] 전공 및 학위과정별 유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문)대학	대학원		전체
		석사	박사	
인문사회	76,774 (42.85)	30,003 (16.74)	7,641 (4.26)	114,418 (63.85)
공학	23,631 (13.19)	3,955 (2.21)	3,303 (1.84)	30,889 (17.24)
자연과학	8,505 (4.75)	1,731 (0.97)	1,627 (0.91)	11,863 (6.62)
예체능	11,200 (6.25)	5,390 (3.01)	4,857 (2.71)	21,447 (11.97)
의학	40 (0.02)	199 (0.11)	334 (0.19)	573 (0.32)
전체	**120,150 (67.05)**	**41,278 (23.04)**	**17,762 (9.91)**	**179,190 (100.00)**

자료: 교육부(2025)

다. 출신지역과 국가에 따른 유학생 현황

출신지역에 따른 유학생 현황에서는 아시아 출신의 유학생이 232,633명(91.79%)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는 유럽(11,585명, 4.57%), 북아메리카(4,484명, 1.77%) 출신의 학생이 뒤를 이었다.

[표 2-4] 출신지역별 유학생 현황

출신지역	빈도(명)	비율(%)
아시아	232,633	91.79
유럽	11,585	4.57
북아메리카	4,484	1.77
아프리카	3,080	1.22
남아메리카	1,242	0.49
오세아니아	410	0.16
전체	**253,434**	**100.00**

자료: 교육부(2025)

유학생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상위 5개의 국가 모두 아시아 국가로 중국(76,541명, 30.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75,144명, 29.65%)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국과 베트남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15,786명, 6.23%), 몽골(15,270명, 6.03%), 네팔(12,784명, 5.04%) 국적의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 국적별 유학생 현황

출신지역	빈도(명)	비율(%)
중국	76,541	30.20
베트남	75,144	29.65
우즈베키스탄	15,786	6.23
몽골	15,270	6.03
네팔	12,784	5.04

자료: 교육부(2025)

주: 비율은 유학생 전체(253,434명)에 대한 비율

제 2 절 취업지원과 취업역량의 개념

1. 취업지원의 개념

취업지원이란 취업 즉, 실질적인 구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취업은 시간제 취업이 아닌, 공식적인 취업을 의미한다. 구직자는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때문에 각 대학들은 구직과정을 중심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5가지의 가장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은 1) 취업 역량강화 캠프 2) 취업 박람회 3) 교내 취업특강 4) 학기별 취업강좌 5) 취업동아리로 압축할 수 있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이렇듯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구직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 노동시장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취업프로그램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허균,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을 대학에서 지원하는 각종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그 하위항목을 구성하였다. 취업지원의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추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지원’, ‘한국 기업 채용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모의면접’, ‘한국 취업시 외국인이 따라야 하는 행정절차 안내’, ‘인턴십 프로그램’, ‘유학생 취업박람회’, ‘기존에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활동’,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8가지 항목으로 취업지원의 하위항목을 구성할 수 있었다. 후술 될 4장. 연구 결과 부분 에서는 이러한 취업지원 항

목들에 대해 유학생들의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그 정도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취업역량의 개념

취업역량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힘’ 또는 ‘취업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취업역량은 고용가능성, 진로역량, 구직역량 등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원중배, 주용국, 2023). 취업역량은 구직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며, 취업역량 강화는 곧 성공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구직자는 개인이 부족한 취업역량에 대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고재성 외(2009)는 구직역량을 구직지식군, 구직기술군, 구직태도군, 직무적응군의 4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구직역량의 4가지 요소에는 자기이해, 구직정보탐색능력, 의사소통능력, 현장직무수행능력 등이 포함된다(원중배 외(2023); 고재성, 이건남, 김성남, 변정현(2009)).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채용정보 탐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취업특강, 대화기술, 면접기술 등의 구직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역량을 ‘한국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채용서류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 ‘한국어 면접시험 능력’, ‘한국 기업에 맞는 채용정보 탐색능력’, ‘장점에 대한 파악 및 한국어로의 설명 능력’의 5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유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는 취업역량에 대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후술 될 4장. 연구 결과 부분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고용 24 홈페이지,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https://www.work24.go.kr/wk/b/a/1110/retriveIntro.do / 검색일: 2025.11.19.)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국외 선행연구

유학생의 취업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국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 인적자원으로서 인식하고, 학업 이후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2-6] 국외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연도)	연구명
Shen, Herr (2004)	Career Placement Concerns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Sangganjanavanich, Lenz, Cavazos (2011)	International students' employment search in the United States: A phenomenological study
Nunes, Arthur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integrating into the workforce
Lu, Everson Härkälä (2024)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of employment integration in Finland

Shen, Herr (2004)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미국 내 대학원 과정 유학생의 진로선택과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의 학업 이후 진로 계획은 귀국, 제3국 이동, 미국 체류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동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유학생들이 취업과정에 있어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보다

학과 네트워크, 학술 활동 등에 더 높게 의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이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거듭나야 함을 시사하였고,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제도 및 비자에 관한 정보 제공, 실무경험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Sangganjanavanich, Lenz, Cavazos (2011)는 미국에서 취업 과정에 있는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취업 과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찾는 과정, 미국의 취업 문화에 대한 적응, 관련 정책이나 고용 관련 규정 등 취업정보 부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개발 전문가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유학생들이 고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해당 연구는 유학생의 취업과정에서의 경험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Nunes, Arthur (2013)는 캐나다에서 유학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요인과 방해가 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입장에서 유학생의 국제적 배경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유학생의 취업과정에서 대학 내 취업지원 서비스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하여 관련 부서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의 표본이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u, Everson Härkälä (2024)는 핀란드 소재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학업 이후 핀란드 내 취업의향과 취업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업 이후 핀란드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취업과정에서 핀란드의 고용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채용정보 확인 과정에 있어서의 언어문제, 전공분야에 따른 취업률 차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주의 채용의지, 대학의 언어지원 확대 및 취업박람회 제공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유학생의 대부분은 국가를 불문하고 취업과정에서 정보부족, 고용주의 소극적 태도, 대학 차원의 지원 미흡, 전공 차이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학생의 취업이 단순히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전공이나 대학의 지원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2. 국내 선행연구

최근 한국 내에서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우수인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점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유학생 관련 연구 중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2-7] 국내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연도)	연구명
복락 (2009)	재한 중국유학생 졸업자의 직업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치자명 (202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계획 영향요인 분석
유첸, 김미영 (2024)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취업동기 및 취업준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유오령 (2018)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보 인식에 관한 연구 : KAIST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복락(2009)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의 직업선택 요인이 실질적인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인구학적 변인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유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중국 유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의해서만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치자명(2020)은 중국 유학생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개인의 인구통계적 변인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변인을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의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 강의와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학위과정 중 한국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대학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류 활동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는 유학생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앞서 제시된 복락(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 중국 유학생에 한정되어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첸, 김미영(2024)은 유학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대학생활 적응과 문화적응에만 집중되어있고, 졸업 후 유학생의 취업준비 및 경력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유학생 중 중국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취업 및 경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문제를 넘어서 이들의 실질적인 정주와 취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오늘날의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사회통합을 넘어 이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준비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 특정 국가와 성별에 국한되어있고, 정성 연구로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유오령(2018)은 이공계열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인식에 대한 차이

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취업지원 부분에서 특히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는 유학생 중 특히 고급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이공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전공이 한정되어 있어 유학생 전반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국가나 전공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유학생 집단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 국외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정에 있어 개인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와 달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제한하여 유학생의 실제 취업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국적과 전공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개인의 인구통계적 변인 뿐만 아니라 전공, 학위과정과 같이 보다 폭넓은 변인을 고려하여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유학생의 취업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유학생 취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탐색적 목적의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전공별 취업지원 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전공별 취업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학위과정별 취업지원 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학위과정별 취업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모형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과 학위과정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취업지원 수요, 취업역량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각 하위항목에 대한 점수의 총합 평균을 하나의 변인으로 산출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설명변수		결과변수
전공 학위과정	→	취업지원 수요 취업역량

제 3 절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취업계획과 취업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 내에 유학 중이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제외한 정규 학위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25년 9월 8일에 처음 개발되어 총 3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첫 번째 수정 과정에서는 설문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의 제목이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조사대상을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유학생의 체류자격을 세부적으로 묻는 스크리닝 문항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수정 과정에서는 일부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고 중복되거나 무의미한 선택지를 삭제함으로써 설문의 가독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수정 과정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희망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결과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문과 영문 두 종류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총 5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항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졸업 직후 취업계획, 현재의 취업경험, 취업지원 수요, 취업역량 평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 수요, 취업역량의 경우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와 대학에서 진행하는 재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일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유학생 대상의 취업지원 활동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구분	조사내용	비고
Ⅰ. 응답자 통계사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의 경우 출생연도 기입
Ⅱ. 졸업 직후 취업계획	한국 내 취업희망 여부	
	취업 희망 기관유형	
	한국 내 취업희망 지역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Ⅲ. 현재의 취업경험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구직경험 여부 및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취업관련 정보 취득의 주된 경로	
	취업정보에 대한 정보력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 후 분석과정에서 하위항목의 총합에 대한 평균 활용
	소속 학교에서의 취업지원 체감 정도	
Ⅳ. 취업지원 수요	유학생이 받기를 희망하는 취업지원 유형	
Ⅴ. 취업역량 평가	유학생의 구직능력에 대한 평가	

2. 설문조사 진행

조사대상의 표집을 위해 ‘알럽코’, ‘K-campus’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주로 활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를 활용하였고, 구글 폼(Google Forms)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응답자 사례선물은 설문조사 종료 이후 2025년 11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설문응답 수집기간은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문 설문지 349건, 영문 설문지 18건을 포함하여 총 367건을 회수하였으며,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불성실하거나 중복된 응답, 조사대상에 어긋나는 응답은 삭제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유효 응답지는 319건을 확보하였다.

본래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나 전공 질문에서 예체능 응답자가 6명, 보건 및 의료 응답자는 10명으로 수집되었고 학위과정 질문에서 전문학사가 3명으로 수집되었다. 이 경우 표본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해당 응답을 삭제한 후 결과분석을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SPSS 29.0을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 t-test, ANOVA 분석, 사후검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유학생의 취업계획과 취업경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취업지원 항목에 대해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라 어떤 항목에서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지 항목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별, 학위과정별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집단 간 차

이 검정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보다 세부적인 집단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 사후검정을 시행하였고, 셰페(Scheffe)의 사후검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45.77%), 여자(54.23%)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공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31.6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공학(25.71%), 인문과학(19.75%), 한국학(13.48%), 자연과학(9.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출생연도를 입력하도록 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19세 이하'(4.39%), '20~24세'(66.46%), '25~29세'(21.32%), '30세 이상'(7.84%)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24세'의 경우가 212명(66.4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사 학위과정(80.88%)인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국적은 국가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응답을 수집하였고, 대륙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69.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북아메리카(12.85%), 동남아시아(10.34%), 중앙아시아(2.82%), 유럽(2.51%), 서남아시아(2.19%)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국적에서 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84.63%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집단의 출신지역별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추가로 아시아 국가 중 상위 3개국을 확인한 결과, 중국(51.41%) 응답자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13.17%), 베트남(5.64%) 순서로 많게 나타났다. 체류자격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D-2(유학) 체류자격(88.71%)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전공**		
남	146	45.77	사회과학	101	31.66
여	173	54.23	공학	82	25.71
국적			인문과학	63	19.75
동북아시아	221	69.28	한국학	43	13.48
북아메리카	41	12.85	자연과학	30	9.40
동남아시아	33	10.34	**학위과정**		
중앙아시아	9	2.82	학사	258	80.88
유럽	8	2.51	석사	48	15.05
서남아시아	7	2.19	박사	13	4.08
연령			**체류자격**		
19세 이하	14	4.39	D-2(유학)	283	88.71
20~24세	212	66.46	F-4(재외동포)	32	10.03
25~29세	68	21.32	F-5(영주)	3	0.94
30세 이상	25	7.84	F-6(결혼이민)	1	0.31
한국 거주기간			**학교위치**		
6개월 미만	3	0.94	동북권	126	39.50
6개월이상~1년미만	51	15.99	서남권	100	31.35
1년이상~2년미만	119	37.30	서북권	49	15.36
2년 이상	146	45.77	동남권	27	8.46
			도심권	17	5.33
합계	**319**	**100.00**	**합계**	**319**	**100.00**

주: 연령의 경우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함.

제 2 절 유학생의 취업계획 및 경험

1. 유학생의 취업계획

가. 졸업 직후 한국취업 희망여부

유학생에게 졸업 직후 6개월 이내 한국에서의 취업 희망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319명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75명(54.86%)으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졸업 직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미 취업을 한 경우는 84명(26.33%),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모름'에 응답한 경우는 9명(2.82%),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51명(15.9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175명, 54.86%)와 이미 취업을 한 경우(84명, 26.33%)를 합한 값이 259명(81.19%)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라 응답을 비교한 결과 전공을 불문하고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위과정에 따른 한국 내 취업희망 여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학사 학위과정의 경우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127명(49.22%)로 전체 수준(54.86%)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석사 38명(79.17%), 박사 10명(76.92%)으로 전체 수준(58.86%)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유학생의 한국취업 희망여부

(단위: 명, %)

구분		네	아니오	모름	이미 취업함	전체
전공	한국학	24 (55.81)	2 (4.65)	1 (2.33)	16 (37.21)	43 (100.00)
	인문과학	33 (52.38)	14 (22.22)	1 (1.59)	15 (23.81)	63 (100.00)
	사회과학	52 (51.49)	16 (15.84)	6 (5.94)	27 (26.73)	101 (100.00)
	공학	48 (58.54)	12 (14.63)	1 (1.22)	21 (25.61)	82 (100.00)
	자연과학	18 (60.00)	7 (23.33)	0 (0.00)	5 (16.67)	30 (100.00)
학위과정	학사	127 (49.22)	50 (19.38%	3 (1.16)	78 (30.23)	258 (100.00)
	석사	38 (79.17)	1 (2.08)	5 (10.42)	4 (8.33)	48 (100.00)
	박사	10 (76.92)	0 (0.00)	1 (7.69)	2 (15.38)	13 (100.00)
전체		175 (54.86)	51 (15.99)	9 (2.82)	84 (26.33)	319 (100.00)

나.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와 희망 기관유형 및 지역

졸업 직후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한 응답자 175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유형, 지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높은 보수를 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5명(42.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활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46명(26.29%), 한국의 문화와 생활 인프라에 대한 선호 이유가 27명(15.43%)으로 뒤 이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더 높은 보수를 기대하고 취업을 희망하거나 한국에서 유학하며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3]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응답	빈도(명)	비율(%)
한국에서 더 높은 보수를 받을 것 같아서	75	42.86
한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활용하고 싶어서	46	26.29
한국의 문화와 생활 인프라가 좋아서	27	15.43
본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	21	12.00
한국에 가까운(친한) 사람이 있어서	5	2.86
기타	1	0.57
전체	175	100.00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유형의 경우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92명(52.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서 공기업/공공기업(60명, 34.29%), 대학 및 연구소(22명, 12.57%)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4]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유형

응답	빈도(명)	비율(%)
민간기업	92	52.57
공기업/공공기관	60	34.29
대학 및 연구소	22	12.57
비영리 기관	1	0.57
전체	175	100.00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161명(92.00%)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서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서울 소재 대학의 유학생으로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까지 폭넓게 반영한다면, 비교적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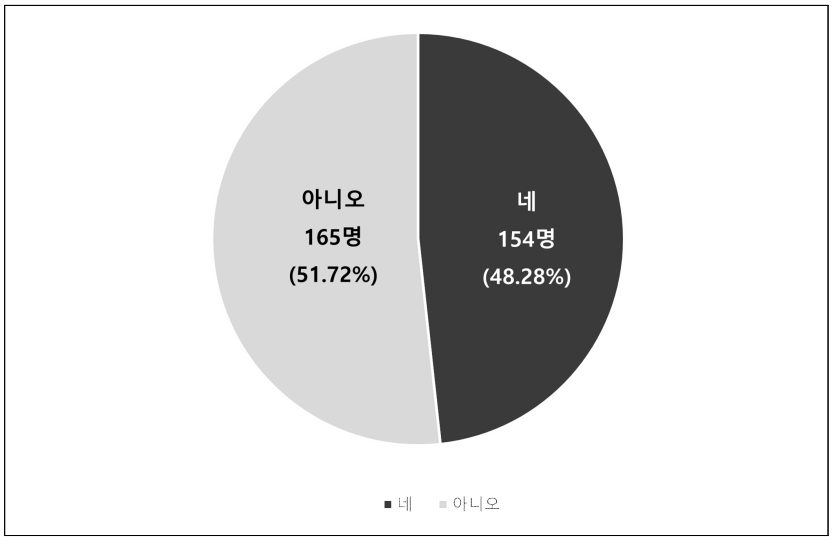
응답	빈도(명)	비율(%)
수도권 지역	161	92.00
외국인 지원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7	4.00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	3	1.71
취업이 가능하다면 지역은 상관 없다	3	1.71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	1	0.57
전체	175	100.00

2. 유학생의 취업경험

가.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154명(48.28%),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65명(51.72%)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N=319

추가로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165명의 학생에게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의 취업지원 서비스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더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63명(38.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1명(36.97%)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지원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는줄 몰랐다는 답변이 22명(13.33%)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소속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해당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4-6] 학교 내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응답	빈도(명)	비율(%)
다른 곳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63	38.18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61	36.97
있는 줄 몰라서	22	13.33
도움이 되지 않아서	17	10.30
기타	2	1.21
전체	165	100.00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된 대학에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문항은 취업지원의 하위항목 8가지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별로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각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속학교에서 취업지원을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3.75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다고 답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이 4.00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기업 연계형 인턴십'과 '전공과 관련된 실습처 제공' 항목이 모두 3.63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가 3.6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7] 학교 내 취업지원을 체감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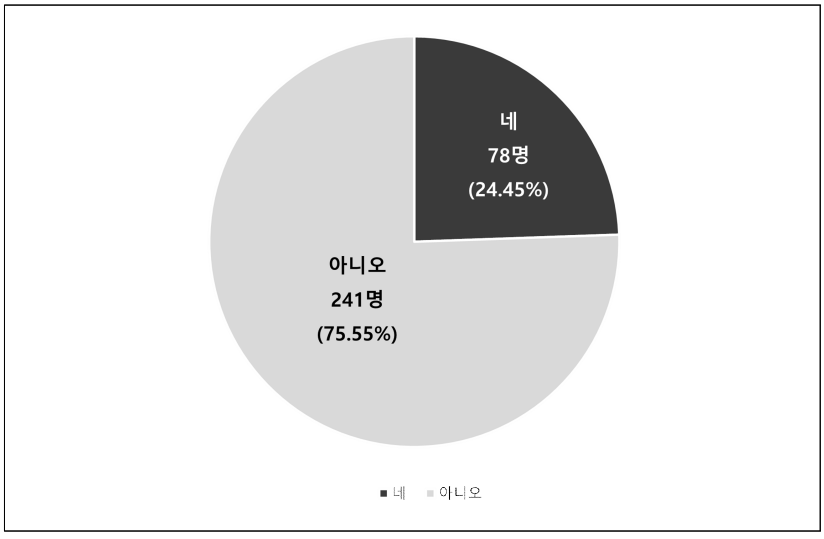
응답	평균	표준편차
기업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	4.00	0.88
면접대비 모의면접/피드백	3.84	1.06
기존에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3.81	1.04
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3.72	0.91
한국취업 관련 비자/노무 상담	3.71	1.08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3.69	1.06
전공과 관련된 실습처 제공	3.63	1.01
기업 연계형 인턴십	3.63	1.13
전체	**3.75**	**0.78**

주: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1점~'매우 잘 지원한다'=5점으로 산출한 평균값

나. 유학생의 구직경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질적인 구직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구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78명(24.45%)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실질적인 구직경험의 여부에는 재학 중인 학년이나 구체적인 진로계획, 더 나아가서 취업도전에 대한 실패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유학생의 구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구직경험 여부



N=319

앞선 문항에서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78명에게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구직과정에서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42명(53.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자 문제가 15명(19.23%), 기업의 외국인 채용에 대한 선입견 문제가 11명(14.10%)로 나타났다.

[표 4-8]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응답	빈도(명)	비율(%)
전공에 맞는 일자리 부족	42	53.85
비자 문제	15	19.23
기업의 선입견	11	14.10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어려움	4	5.13
한국어 능력 부족	3	3.85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 능력 부족	2	2.56
기타	1	1.28
전체	78	100.00

추가로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42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전공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문과학 전공자의 비율이 17명(4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 11명(26.19%), 공학 7명(16.67%) 순서로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비록 표본의 수가 적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공에 따라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실감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9] 전공에 따른 일자리 부족 응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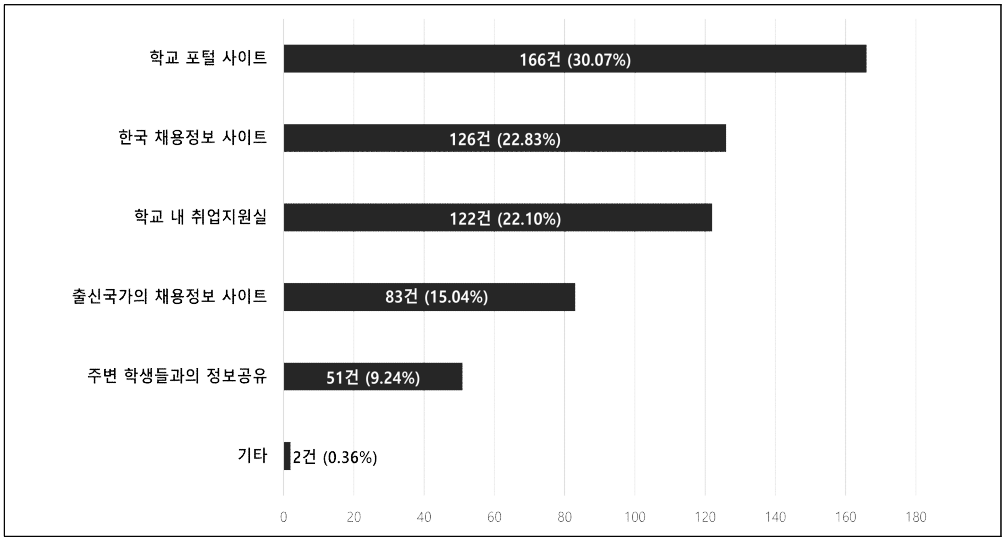
응답	빈도(명)	비율(%)
인문과학	17	40.48
사회과학	11	26.19
공학	7	16.67
한국학	6	14.29
자연과학	1	2.38
전체	42	100.00

다. 유학생의 취업정보 취득경로

전체 응답자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에 관해 질문하였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경로에 대해 최대 2개까지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552건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그 중 '학교 포털 사이트'가 166건(30.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한국의 채용정보 사이트가 126건(22.84%), 학교 내 취업지원실이 122건(22.10%)으로 수집되었다.

응답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이 가장 많았던 상위 3개의 항목 중 2개의 항목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해당하였다. 이는 유학생들이 대부분 취업관련 정보를 획득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3] 유학생의 취업정보 취득경로



N=552

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른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와 취업역량 평가의 항목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취업지원 수요에 대한 항목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준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M=4.17)이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지원'(M=4.15), '모의면접'(M=4.14), '기존에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활동'(M=4.13), '취업 시 외국인이 따라야 하는 행정절차 안내'(M=4.09), '인턴십'(M=4.06), '채용절차 정보제공'(M=4.05),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M=3.95)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수준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학생들이 취업지원을 필요로하는 수준은 8개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에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전공에 따라서도 취업지원의 항목별 수요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학 계열의 전공자는 행정절차 안내(M=4.14), 인문과학 계열 전공자는 자격증 취득지원(M=4.03), 사회과학 계열 전공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M=4.13), 공학 계열 전공자는 멘토링 활동(M=4.38),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는 인턴십(M=4.40)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위과정에 따라서는 항목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학사(M=4.02), 석사(M=4.00), 박사(M=3.62) 세 집단 모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4-10]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 따른 취업지원 항목별 수요

구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채용절차 정보제공	모의면접	행정절차 안내	인턴십	취업박람회	멘토링	자격증 취득지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공	한국학	4.09 (0.84)	4.02 (0.96)	3.98 (1.03)	4.14 (1.01)	3.88 (1.12)	3.81 (0.96)	4.05 (0.92)	4.09 (0.87)
	인문과학	4.00 (0.98)	3.73 (0.92)	3.92 (1.11)	3.87 (1.11)	3.79 (1.25)	3.65 (1.23)	3.92 (1.07)	4.03 (0.95)
	사회과학	4.13 (0.92)	3.96 (0.88)	4.11 (0.90)	3.97 (1.02)	4.07 (1.14)	3.86 (1.10)	4.07 (0.99)	4.12 (0.84)
	공학	4.34 (0.59)	4.28 (0.67)	4.35 (0.71)	4.32 (0.78)	4.23 (0.84)	4.22 (0.83)	4.38 (0.68)	4.27 (0.65)
	자연과학	4.33 (0.66)	4.40 (0.81)	4.37 (0.72)	4.30 (0.75)	4.40 (0.72)	4.30 (0.75)	4.23 (0.73)	4.27 (0.74)
학위과정	학사	4.02 (0.85)	3.88 (1.05)	3.86 (1.04)	3.76 (1.06)	3.74 (0.92)	3.72 (1.05)	3.69 (0.97)	3.66 (1.11)
	석사	4.00 (0.88)	3.77 (1.06)	3.65 (1.04)	3.65 (0.89)	3.63 (1.14)	3.46 (1.25)	3.46 (1.15)	3.40 (1.14)
	박사	3.62 (1.33)	3.62 (1.26)	3.62 (0.77)	3.54 (1.05)	3.38 (1.33)	3.38 (0.96)	3.31 (1.25)	3.31 (0.95)
전체		4.17 (0.83)	4.05 (0.87)	4.14 (0.92)	4.09 (0.97)	4.06 (1.07)	3.95 (1.04)	4.13 (0.92)	4.15 (0.81)

주: 평균(M)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평균값

유학생의 취업역량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취업역량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어떤 항목에서 자신의 취업역량을 낮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역량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라 항목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 전체 수준에서는 '기업의 채용서

류에 맞춰 지원이 가능하다'(M=3.87)는 항목에 대해 취업역량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에 따른 취업역량 평가는 전체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학의 경우 채용정보 탐색능력(M=3.86)에서 가장 낮은 평가수준을 나타냈고, 한국학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에서는 전체 수준에서의 결과와 같이 '채용서류에 맞추어 지원가능' 항목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위과정에 따라서는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학사의 경우 채용정보 탐색능력(M=3.85), 석사는 채용서류에 맞는 지원능력(M=4.00), 박사는 면접시험 능력(M=3.46) 항목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했다.

[표 4-11]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 따른 취업역량

구분		업무수행능력	채용서류에 맞는 지원 능력	면접시험 능력	채용정보 탐색능력	장점 파악 및 설명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전공	한국학	4.05 (0.90)	3.91 (0.95)	4.07 (0.96)	3.86 (1.08)	3.98 (0.94)
	인문과학	3.90 (1.01)	3.44 (0.84)	3.90 (1.01)	3.56 (1.07)	3.73 (1.05)
	사회과학	4.04 (0.95)	3.80 (0.81)	3.89 (1.01)	3.88 (0.94)	3.89 (1.09)
	공학	4.24 (0.68)	4.13 (0.77)	4.23 (0.74)	4.17 (0.68)	4.24 (0.85)
	자연과학	4.47 (0.68)	4.23 (0.77)	4.30 (0.75)	4.27 (0.58)	4.30 (0.79)
학위 과정	학사	4.07 (0.86)	3.86 (0.86)	4.05 (0.90)	3.85 (0.93)	3.99 (0.99)
	석사	4.33 (0.78)	4.00 (0.83)	4.19 (0.84)	4.27 (0.82)	4.15 (0.87)
	박사	3.92 (1.44)	3.69 (0.85)	3.46 (1.51)	4.08 (0.95)	3.62 (1.39)
전체		4.11 (0.88)	3.87 (0.86)	4.04 (0.93)	3.92 (0.93)	4.00 (1.00)

주: 평균(M)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평균값

1. 가설1의 검증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설명변수를 각 전공으로 설정하고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를 취업지원 8개 항목 총합의 평균을 산출해 하나의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전공 간 취업지원 수요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전공 간 취업지원 수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345, p〈.001) 따라서 유의수준 95%에서 가설1을 채택할 수 있다.

추가로 Scheffe의 사후검정을 활용하여 보다 자세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학(M=4.13) 계열 전공자의 취업지원 수요가 인문과학(M=3.48), 사회과학(M=3.58), 한국학(M=3.66) 계열의 취업지원 수요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연과학(M=4.03) 계열의 취업지원 수요가 인문과학(M=3.48)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2] 가설1의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한국학	43	3.66	0.75	10.345***	(공학〉인문과학 , 사회과학 ***, 한국학*) (자연과학〉인문과학*)
인문과학	63	3.48	0.76		
사회과학	101	3.58	0.88		
공학	82	4.13	0.51		
자연과학	30	4.03	0.62		

*p〈0.05 **p〈0.01 ***p〈0.001

2. 가설2의 검증

전공에 따른 취업역량평가의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명변수를 각 전공별로 설정하고 결과변수를 취업역량 5개 항목 총합의 평균으로 설정하여 유의수준 95%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전공 간 취업역량 평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6.998, P〈.001) 이에 따라 가설2의 채택이 가능해졌다.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자연과학(M=4.31) 계열의 전공자가 인문과학(M=3.71), 사회과학(M=3.90) 계열의 전공자보다 스스로에 대한 취업역량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공학(M=4.20) 계열의 전공자가 인문과학(M=3.71) 계열의 전공자보다 취업역량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3] 가설2의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한국학	43	3.97	0.75	6.998***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인문과학***)
인문과학	63	3.71	0.74		
사회과학	101	3.90	0.77		
공학	82	4.20	0.51		
자연과학	30	4.31	0.45		

*p〈0.05 **p〈0.01 ***p〈0.001

3. 가설3의 검증

학위과정에 따라 취업지원 수요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취업지원 수요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유의수준 95%에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학위과정에 따른 취업지원 수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F=1.843, p=0.160) 때문에 유의수준 95%에서 '학위과정별 취업지원 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또 통계적으로 차이가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사후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표 4-14] 가설3의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학사	258	3.79	0.77	1.843	p>.05
석사	48	3.63	0.81		
박사	13	3.47	0.78		

추가로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석사와 박사를 합하여 대학원 과정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학사와 대학원 과정의 두 집단 간 취업지원 수요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를 통해 유의수준 95%에서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 결과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두 집단 간 취업지원 수요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813, p=0.955).

[표 4-15] 가설3의 추가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비고
학사	258	3.79	0.77	1.813	p>.05
대학원	61	3.59	0.80		

4. 가설4의 검증

학위과정에 따른 취업역량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취업역량 평가 5가지 항목의 총합 평균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유의수준 95%에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위과정에 따른 취업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858, p=0.059).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위과정별로 취업역량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4는 기각되며, 학위과정에 따라 취업역량 평가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사후검정은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

[표 4-16] 가설4의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학사	258	3.96	0.70	2.858	p>.05
석사	48	4.19	0.56		
박사	13	3.75	0.97		

가설3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유의수준 95%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사과정 취업역량(N=258, M=3.96, SD=0.70)이 대학원 과정의 취업역량(N=61, M=4.10, SD=0.6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취업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1.314, p=0.029).

[표 4-17] 가설4의 추가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학사	258	3.96	0.70	-1.314*
대학원	61	4.10	0.68	

*p<0.05 **p<0.01 ***p<0.001

5. 가설검증의 결과

유학생의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라 취업지원 수요와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행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에서는 전공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4-18]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8] 가설검증의 결과

구분	내용	검증결과
가설1	전공별 취업지원 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	전공별 취업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3	학위과정별 취업지원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4	학위과정별 취업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검증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하자면 가설4의 검증과정에서 취업역량의 차이가 학사, 석사, 박사 세 집단 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기존의 연구가설을 기각하였지만, 학사과정과 대학원 이상의 석박사과정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원 과정의 경우 학사 과정에 비해 심층적인 전공 과정, 관련지식과 연구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취업계획과 취업경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와 취업역량을 파악하여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른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학생의 대다수(81.19%)가 졸업 직후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석사(79.17%), 박사(76.92%)의 대학원 과정 집단에서 한국 내 취업에 대한 의지가 학부과정의 수준(49.22%)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유학생의 교내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 이하 수준(48.28%)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교 이외에 다른 경로에서 더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의 비율(38.18%)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과 관련된 정보획득의 주된 경로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52.17%)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대상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를 리커트(Likert)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8개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이 4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M=4.17)과 '자격증 취득 지원'(M=4.15), '모의면접'(M=4.14)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학생들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가설검증 결과 전공에 따른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후검정 결과, 공학 및 자연과학 계열이 인문 및 사회 계열보다 취업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역량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큰 틀에서 이공계열 유학생과 인문사회계열 유학생에 대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취업지원 수요와 취업역량에 대해 전공별, 학위과정별로 분석하여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유학생 취업지원 방안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조사대상이 서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표본집단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 특히 최근의 유학생 정책은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 유치정책으로 인해 지방 대학의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에는 서울 중심의 지역적 한정에서 벗어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의 유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지역 차원의 유학생 취업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본래 다양한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예체능과 보건 및 의료 계열 전공,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때문에 전체 유학생 집단의 다양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에는 전공과 학위과정의 세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 잡힌 표집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역량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취업역량은 유학생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량을 완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유학생의 취업역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한정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의 산업구조와 유학생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과 그에 따른 취업지원 수요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에는 일시적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의 취업지원 수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연구방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가능하고, 설문 응답자가 보다 쉽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표본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응답자로 하여금 성실한 응답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등의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제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는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역량 제고와 대학의 취업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공 특성에 기반한 전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전공에 따라 취업지원 수요와 역량이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큰 틀에서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집단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공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 제공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많은 유학생이 학교의 포털 사이트와 취업지원실을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 중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언어지원을 확대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동원하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자와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유학생의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자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표본집단 중에서도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비자와 그에 따른 행정 문제가 유학생의 국내 취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인재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대학에서는 유학 업무에서 비자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여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비자 및 행정절차, 취업 후 체류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학생으로 하여금 취업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유학생의 취업지원을 통해 유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학생 취업이나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학년이나 전공 등 세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관적인 내용이 많다. 따라서 향후 더 효과적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유학생을 단순히 유학생 자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세부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 학생과 달리 유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원준, 김정원, 김종인. (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7-36

강원준, 김정원, 김종인. (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7-36

고재성, 이건남, 김성남, 변정현. (2009).『청년층 구직역량 실태조사』.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 (2025). 2025년 국내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2023).『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김민숙, 송창용, 윤혜준, 김혜정. (2020).『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호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복락. (2009). “재한 중국유학생 졸업자의 직업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윤희, 김지하, 백승주, 조옥경, 김가연. (2025).『외국인유학생의 취업실태와 이슈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오정은. (2025).『고숙련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 활성화 방안』. 서울: 2025 글로벌 인재 포럼.

오정은, 고지영, 김경미, 김안나, 안상욱, 장지은, 한유경. (2013). 우수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2.

원중배, 주용국. (2023). 청년층 취업역량모델 개발.『취업진로연구』. 13(3), 41-78.

유오령. (2018).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보 인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첸, 김미영. (2024).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취업동기 및 취업준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33(4), 5-28.
이창원, 김도혜, 김화연, 최서리, 김도원. (2024). 국내 유학생 정책 재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04.
치자명. (202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계획 영향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유영. (2023). 대학 진로·취업 프로그램이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5(4). 47-61.
한티레투. (2025).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대학(원) 졸업 후 진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Lu, W., & Everson Härkälä, T. (2024).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of employment integration in Finland.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9(2), 133-152.
Nunes, S., & Arthur, N.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integrating into the workforce.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50(1), 34-45.
OECD. (2016). OECD Factbook: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Sangganjanavanich, V. F., Lenz, A. S., & Cavazos Jr, J. (2011). International students' employment search in the United State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8(1), 17-26.
Shen, Y. J., & Herr, E. L. (2004). Career placement concerns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1(1), 15-29.

3. 웹사이트

고용 24 홈페이지.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https://www.work24.go.kr/wk/b/a/1110/retriveIntro.do / 검색일: 2025.11.19.)

하이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https://www.hikorea.go.kr/Main.pt / 검색일: 2025.11.12.)

부 록

[부록 1] 국문 설문지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취업지원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서희입니다.

현재 저는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에만 사용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김서희 드림

Ⅰ. 응답자 통계사항

문1. 귀하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입니까?

① 네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2. [체류자격]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D-2(유학생) ② F-4(재외동포)
③ F-5(영주) ④ F-6(결혼이민)
⑤ 기타

문3.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는 어느 자치구에 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문4.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문5. [연령]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_____년

문6. [국적] 귀하의 현재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_____

문7. [체류자격]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D-2-1(전문학사) ② D-2-2(학사유학)
③ D-2-3(석사유학) ④ D-2-4(박사유학)
⑤ F-4(재외동포) ⑥ F-5(영주)
⑦ F-6(결혼이민) ⑧기타

문8. [학위과정] 귀하가 재학 중인 학위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학사 ② 학사
③ 석사 ④ 박사
⑤ 기타

문9. [거주기간] 귀하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

문10. [전공] 귀하의 전공은 어느 계열 입니까?

① 한국학(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정치 등)
② 한국학 이외의 인문과학(문학, 어학, 철학, 역사 등)
③ 한국학 이외의 사회과학(정치, 경제, 법, 사회, 행정, 경영, 심리 등)
④ 공학
⑤ 자연과학
⑥ 예체능(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⑦ 보건 및 의료
⑧ 융복합(복수전공 등)
⑨ 기타

문11. [한국어 능력] 귀하의 TOPIK 점수는 몇 급 입니까?(점수가 없거나 다른 시험 점수는 기타에 표시)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기타

Ⅱ. 졸업 직후 취업계획

*** 다음은 귀하의 취업계획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취업은 공식 취업비자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을 의미합니다.**

문12. 귀하는 졸업 직후(졸업 후 6개월 이내)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합니까?

① 네(이미 취업한 경우 포함) ▶ 문13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16으로 가시오
③ 이미 취업함 ▶ 문16으로 가시오
④ 모름 ▶ 문16으로 가시오

문13. 귀하가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어느 기관에 취업하고 싶습니까?

① 공기업/공공기관
② 민간기업 ▶ 문13-1로 가시오
③ 대학 및 연구소
④ 비영리 기관
⑤ 기타

문 13-1.(민간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어느 유형의 회사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까?

① 대기업
② 외국계 기업
③ 중견기업
④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문14. 귀하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②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
③ 외국인 지원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④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
⑤ 취업이 가능하다면 지역은 상관없다
⑥ 기타

문15. 귀하가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에서 더 높은 보수를 받을 것 같아서
② 본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
③ 한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활용하고 싶어서
④ 한국의 문화와 생활 인프라가 좋아서
⑤ 한국에 가까운(친한) 사람이 있어서
⑥ 기타

Ⅲ. 현재의 취업경험

*** 다음은 귀하의 취업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취업은 공식 취업비자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을 의미합니다.**

문16. 귀하는 최근(6개월 이내) 학교 내 취업지원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 문16-1로 가시오

문 16-1.(학교 내 취업지원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다른 곳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③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④ 있는 줄 몰라서 ⑤ 기타

문17. 귀하는 최근(6개월 이내) 구직 경험이 있습니까?

① 네 ▶ 문17-1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18으로 가시오

문 17-1.(구직경험이 있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전공에 맞는 일자리 부족 ② 비자 문제 ③ 한국어 능력 부족 ④ 기업의 선입견 ⑤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 능력 부족 ⑥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어려움 ⑦ 기타

문18. 귀하가 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무엇입니까?(최대 2개 골라주세요)

① 학교 포털 사이트

② 학교 내 취업지원실

③ 한국 채용정보 포털(온라인) 사이트(사람인, 링크드인 등)

④ 출신국가의 채용정보 포털(온라인) 사이트

⑤ 주변 학생들과의 정보공유

⑥ 기타(　　)

문19. 귀하는 한국에서의 취업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항목 \ 정도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나의 전공과 관련된 주요 한국 기업/기관 목록					
한국의 급여 수준					
취업 관련 비자 시스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 일정					

문20. 귀하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목 \ 정도	①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지원하지 않는다	③ 보통	④ 지원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지원한다
기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면접대비 모의면접/피드백 서비스					
한국취업 관련 비자/노무 상담					
기업 연계형 인턴십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기존에 취업한 선배와 멘토링 활동					
전공과 관련된 실습처 제공					

Ⅳ. 취업지원 수요

* 다음은 귀하가 받기를 원하는 취업지원 종류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취업은 공식 취업비자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을 의미합니다.

문21. 아래 문항은 귀하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질문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 채용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기업 면접준비를 위한 지원(모의면접 등)이 필요하다.					
한국 취업시 외국인이 따라야 하는 행정절차(비자, 신고 등)안내가 필요하다.					
학교와 기업 연계형 인턴이 필요하다.					
유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필요하다.					
기존에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활동이 필요하다.					
유학생을 위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Ⅴ. 취업역량 평가

* 다음은 귀하가 평가하는 취업역량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취업은 공식 취업비자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을 의미합니다.

문22. 아래 문항은 귀하의 구직능력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질문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한국어로 전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의 채용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 면접시험에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정보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나만의 장점을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다.					

문23. 유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24.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_____

설문종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영문 설문지

Survey on Employment Support Needs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Degree Program in Korea

Dear Participant,

My name is Seohee Kim, and I am currently a master's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at Hansung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writing my master's thesis, I am conducting a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to this questionnaire.
Please respond honestly based on your own thoughts and experiences.

All responses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and will be used solely for research purpos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September 2025
Seohee Kim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Ⅰ. Respondent Information

Q1. Are you currently enrolled in or taking a leave of absence from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① Yes ② No ▶ End of survey

Q2. [Visa Status] What is your current visa status?

① D-2(Student) ② F-4(Overseas Korean)
③ F-5(Permanent Resident) ④ F-6(Marriage Migrant)
⑤ Others

Q3. In which district(gu) is your university located?

① Gangnam-gu ② Gangdong-gu
③ Gangbuk-gu ④ Gangseo-gu
⑤ Gwanak-gu ⑥ Gwangjin-gu
⑦ Guro-gu ⑧ Geumcheon-gu
⑨ Nowon-gu ⑩ Dobong-gu
⑪ Dongdaemun-gu ⑫ Dongjak-gu
⑬ Mapo-gu ⑭ Seodaemun-gu
⑮ Seocho-gu ⑯ Seongdong-gu
⑰ Seongbuk-gu ⑱ Songpa-gu
⑲ Yangcheon-gu ⑳ Yeongdeungpo-gu
㉑ Yongsan-gu ㉒ Eunpyeong-gu
㉓ Jongno-gu ㉔ Jung-gu
㉕ Jungnang-gu

Q4. [Gender]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Q5. [Age] What year were you born?

_____

Q6. [Nationality] What is your current nationality?

_____

Q7. [Visa Status] What is your current visa status?

① D-2-1(Associate Degree) ② D-2-2(Bachelor's Degree)
③ D-2-3(Master's Degree) ④ D-2-4(Doctoral Degree)
⑤ F-4(Overseas Korean) ⑥ F-5(Permanent Resident)

⑦ F-6(Marriage Migrant) ⑧ Others

Q8. [Degree Program] Which degree program are you currently enrolled in?

① Associate Degree ② Bachelor's Degree
③ Master's Degree ④ Doctoral Degree

Q9. [Length of Stay]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① Less than 6 months
② 6 months – less than 1 year
③ 1 year – less than 2 years
④ 2 years or more

Q10. [Major] Which field does your major belong to?

① Korean Studies(Korean language, culture, history, politics, etc.)
② Humanities other than Korean Studies(literature, linguistics, philosophy, history, etc.)
③ Social Sciences other than Korean Studies(politics, economics, law, sociology, administration, business, psychology, etc.)
④ Engineering
⑤ Natural Sciences
⑥ Arts & Physical Education(music, art, dance, sports, etc.)
⑦ Health & Medical Sciences
⑧ Interdisciplinary Studies(e.g., double majors)
⑨ Others

Q11.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hat is your TOPIK level?(If you do not have TOPIK or have another test score, select "Other.")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⑥ Level 6
⑦ Others

Ⅱ. Employment Plan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 The following question concerns your employment plans. Employment refers to official employment under a valid work visa.

Q12. Do you plan to seek employment in Korea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within 6 months)?

① Yes(including already employed) ▶ Go to Q13

② No ▶ Go to Q16

③ Already employed ▶ Go to Q16

④ Not sure ▶ Go to Q16

Q13. If you plan to work in Korea, what type of organization would you prefer?

① Public enterprise/Goverment agency

② Private company ▶ Go to Q13-1

③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④ Non-profit organization

⑤ Others

Q13-1.(If private company) What type of company would you prefer?

① Large corporation

② Foreign-affiliated company

③ Mid-sized company

④ Small and medium-sized enterpirse or venture company

Q14. Which region would you prefer to work in?

① Seoul Metropolitan Area(Seoul, Gyeonggi, Incheon)

② Non-metropolitan areas with smaller populations

③ Areas with good support systems for foreigners

④ Areas with low living costs

⑤ Any region, as long as employment is possible

⑥ Others

Q15. What is the main reason you want to work in Korea?

① Because of Higher expected salary in Korea

② Because of Difficulty finding a job in home country

③ To apply what I studied in Korea

④ Because I prefer Korean culture and living infrastructure

⑤ Because I have close friends or family in Korea

⑥ Others

Ⅲ. Current Employment Experience

* The following question concerns your employment experience. Employment refers to official employment under a valid work visa.

Q16. In the past 6 months, have you used any on-campus career support services?

① Yes

② No ▶ Go to Q16-1

Q16-1.(If not used) Why not?

① Because it is not helpful
② Because I thought I could get better support elsewhere
③ Because I don't have time to use them
④ Because I Didn't know such services existed
⑤ Others

Q17. In the past 6 months, have you actively searched for a job?

① Yes ▶ Go to Q17-1

② No ▶ Go to Q18

Q17-1.(If yes) What difficulties did you face during your job search?

① Lack of jobs matching my major
② Visa issues
③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④ Employer prejudice
⑤ Lack of foreign language skills(other than Korean)
⑥ Difficulty obtaining job-related certificates/licenses
⑦ Others

Q18. Through which channels do you mainly obtain job-related information? (Select up to 2)

① University portal site

② University career support center

③ Korean job portal sites(e.g., Saramin, LinkedIn)

④ Job portal sites from home country

⑤ Information sharing with fellow students

⑥ Others

Q19. How much do you know about employment information in Korea?

Scale	① Not at all	② Little	③ Neutral	④ Well	⑤ Very well
Korean companies/institutions related to my major					
Salary levels in Korea					
Visa system for employment in Korea					
Job fair schedul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Q20. Does your university provide support for the following employment-related services?

Scale	① Do not support at all	② Do not support	③ Neutral	④ Support	⑤ Strongly support
Resume/Cover letter writing guidance					
Information about recruitment procedures					
Mock interviews/feedback					
Consultation on employment visas/labor issues					
Company-linked internships					
Job fairs for international students					
Mentoring with alumni who found jobs					
Field training opportunities related to major					

Ⅳ. Employment Support Needs

* The following question concerns the types of employment support you wish to receive. Employment refers to official employment under a valid work visa.

Q21.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support needed for employment in Korea.

Scal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rgee	③ Neutral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I need support for resume/cover letter writing.					
I need information about Korean recruitment procedures.					
I need support for interview preparation(e.g., mock interviews).					
I need guidance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foreigners seeking employment(visa, reporting, etc.).					
I need company-linked internships.					
I need job fair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 need mentoring with alumni who are already employed.					
I need support programs for obtaining job-related certificates/licenses.					

V. Job-Seeking Competence Assessment

* The following question concerns your self-assessment of employment competencies. Employment refers to official employment under a valid work visa.

Q22.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your job-seeking competence.

Scal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utral	④ Agfee	⑤ Strongly agree
I can perform tasks in my major field using Korean.					
I can prepare job application documents(resume, cover letter) according to company requirements.					
I can express myself clearly in Korean during interviews.					
I can independently find job information about Korean companies.					
I can explain my strengths effectively in Korean.					

Q23. Please freely write down any suggestions or expectations you have for your university regarding international students' career paths.

Q24. If you leave your phone number, you will receive a small gift.

_____

End of Survey
Thank you sincerely for your particip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Employment Support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Seoul -

Kim, Seo-hee

Major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Dep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policy interest in utilizing them as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s has been growing. However, research on systematic and major-tailored career support and settle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mains limited.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employment plans, job search experiences, demand for career support, and self-assessed employa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A total of 319 valid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and Scheffe post-hoc tests were conduct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 first, tha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oped

to find employment in Korea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indicating an overall positive perception toward working in Korea. Second, the demand for career support was high across all categories, with particularly strong needs for assistance in résumé and cover letter preparation, certification acquisition, and mock interview programs. Thir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ross academic majors in both career support needs and employability.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demonstrated higher demand for career support and evaluated their employability more positively than thos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lthough differences across degree levels (bachelor's, master's, doctora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 meaningful difference in employability was identified between undergraduate and graduate-level student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tailored career support that reflects differences in academic major and degree level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t also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mproving university-level career support service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is group. To better support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future studies should incorporate qualitative approaches and more diverse and balanced samples.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 employment, international student settlement, employment support, job-seeking competence